

선생님, 우리 어머니를 안락사시켜 주세요



이창걸 시몬
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전 세브란스호스피스실장

“선생님 우리나라에는 왜 안락사 제도가 없습니까? 우리 어머니를 안락사시켜 드리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A 씨의 아들이 진통제를 타기 위해 진료실에 내원해서 한 말이다. 나는 아들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다. 그동안 많은 암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면서 이런 요구를 한 보호자는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안락사를 시켜달라는 말만으로도 A 씨가 어떤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70세 할머니인 A 씨는 구강암으로 진단받고 수술 불가능 상태로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반응이 좋아 약 1년간은 안정 상태를 유지하다 다시 종양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커진 종양에 대해 재차 방사선 치료를 하였으나 큰 반응이 없었고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에 대해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요양하고 있었다. 자식이라고는 외아들 하나 둔 A 씨는 아들이 직장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돌보는 것에 마음이 아팠고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보내고 있었다. 안면부 통증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아들은 진통제를 타기 위해 2주마다 내원하였고 드디어 안락사라는 말을 꺼냈던 것이다.

나는 이전에도 한 번 소개한 적이 있는 호스피스를 다시 설명하여 A 씨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편안한 임종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하였고 아들이 동의하여 가정 호스피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호스피스 간호사가 집을 방문해 본 결과 A 씨의 상황은 최악이었다. 재발된 구강암이 커져 식사를 잘 할 수가 없었고 암이 안면부 피부를 뚫고 나와 그야말로 괴물과 같은 형상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무엇보다 환자와 돌보는 이를 힘들게 했던 것은 종양이 괴사되어 나는 썩은 냄새가 방안을 진동하여 할머니를 병문안 온 친지들마저 잘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환자는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한 번 보고는 ‘이런 인생,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하나’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고 자살도 수차례나 생각을 하였





다고 했다. 이런 어머니를 본 아들은 안락사를 생각하게 되었고 나에게 안락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이다.

가톨릭 신자로서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던 나였지만 A 씨의 상황 속에서 '자식으로서 정말 안락사를 시켜달라고 할 만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냥 안락사는 안 돼' 하는 생각에서 '사람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안락사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다.

세브란스 호스피스에서는 A 씨를 돌보기 위한 팀 미팅을 가졌고 우선 적극적인 통증 치료를 통해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중앙 괴사로 인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자주 방문하여 상처를 치료해주고 방 안에 환풍 시설을 달고 냄새 제거를 위해 숯을 가져다 놓고 자원 봉사자가 방문하여 환자를 씻겨주고 대화하였다. 그리고 환자가 지금 이 순간, 괴물과 같은 존재로 못 먹고 누워 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며 더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느끼도록 목사님께서 방문하여 영적인 상담과 기도를 드렸으며 또한 호스피스팀이 친구로서 함께 하며 돌보아 드렸다.

A 할머니는 약 한 달 간 호스피스 돌봄을 받으시다가 새벽에 편안한 가운데 소천하셨다. 호스피스팀이 할머니를 돌보기 전에는 고통, 절망, 외로움, 악취, 죽음이라는 지옥과 같은 삶 속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통해 편안함, 희망, 함께



**호스피스
돌봄을 통해
편안함, 희망,
함께함, 영원한
생명이라는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났다**

함, 영원한 생명이라는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볼 수 있다. 겨우 한 달 동안 좀 편하게 헤드렸다고 새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환자나 가족으로서 그 한 달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었기에 소중한 것이고 그 순간을 아무도 돌보려 하지 않았던 그 전의 삶과 비교하면 정말 천국과도 같은 순간이었고 새로운 삶이었으며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영원한 삶으로의 첫 발걸음이었다고 생각해본다.

A 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마지막 한 달 간 받았던 호스피스 돌봄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며 자신이 어머니를 안락사시켜 달라고 했던 것에 대해 반성하고 호스피스를 진작에 받아들였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말기 환자가 되면 어차피 죽을 목숨 구차하게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빨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자살 생각을 하거나 안락사를 시켜달라고 하기가 쉬운데 호스피스는 이런 말기 환자와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도록 도와주어 그들이 갖고 있는 무가치함, 가족들에 대한 부담감을 덜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잘 조절되지 못한 통증은 환자로 하여금 안락사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데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적극적인 통증 조절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적절한 통증 관리를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줄일 수 있다.

질병으로 인한 자연적인 사망이 아닌 연명 장치를 동원한 인위적인 연장이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가능하게 되어 많은 말기 환자들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에서 무의미한 생명의 연장을 이어가다 유언 한마디 못하고 차가운 죽음을 맞게 되는 일을 자주 만나게 된다. 설마 자신의 삶이 그렇게 끝날 줄은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일단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의료진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잘못하면 가족들이 원해서 제거해도 살인죄에 해당되는 현 법제도는 많은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전 의사 결정>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건강할 때 자신의 죽음의 방식을 미리 결정해 놓아 의학적으로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불필요한 생명 연장 장치는 연결하지 말 것, 그러나 통증을 포함한 증상 관리는 끝까지 해줄 것 등의 결정을 미리 작성하여 환자가 의식이 없고 가족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망설일 때도 사전 결정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존엄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무의미한 치료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칫 안락사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안락사로 보지 않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법적 제도 장치가 되어 있어 호흡기를 제거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임종 문화는 아직 죽음을 가능한 한 피해야 하고, 인생의 실패로 보고 있으며 죽음, 임종이라는 단어를 꺼내기를 터부시하고 있다. 따라서 언젠가는 맞이할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종이 다가오면 환자와 가족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죽음 준비 교육이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다. 이런 준비 교육을 통해 언젠가 다가올 죽음에 대해 임종 장소를 자신이 선택하고 임종 시에 불필요한 연명 장치를 거부하며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가운데 따뜻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법적 제도 장치의 하나로 사전 의사 결정 제도의 확립과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잘 정착되도록 법 제도화가 이제는 확립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이 임종 시에 외롭고, 차갑고 어두운 환경이 아니라 호스피스의 도움으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임종으로 이어지고 인생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존엄성을 지키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맞이하는 임종 문화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